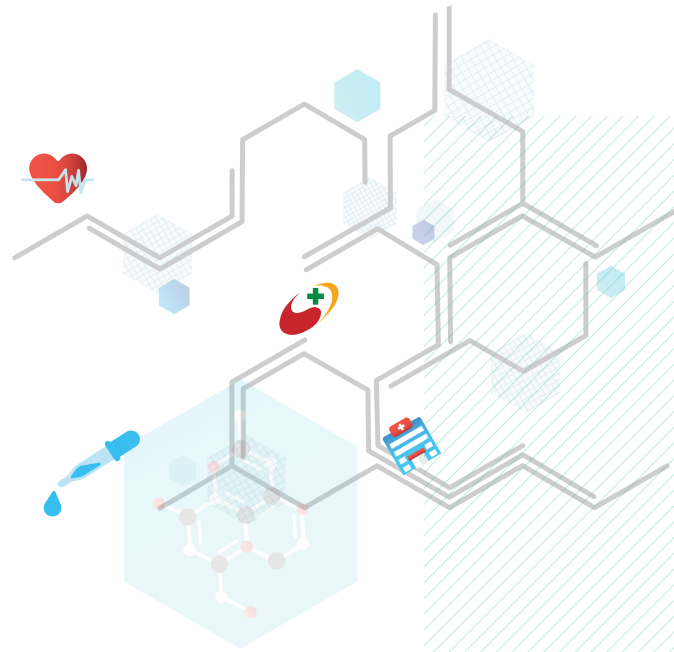


산업보건 주요뉴스



하청의 안전할 권리, 이제는 원청이 보장해야

제264차 '안전점검의 날' 중앙 안전점검 행사

원청의 책임 강화와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3월 5일(월) 제264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27개 지역에서 안전점검 행사를 가졌다. 이번 안전점검의 날은 정부의 '산재사망 절반으로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하청의 안전할 권리, 이제는 원청이 보장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실시됐다.

중앙 안전점검은 하청의 사고사망자 비율이 높은 조선업의 재해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 조선소인 (주)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실시되었다.

이날 중앙 안전점검에는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래식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 과장, 이윤희 (주)한진중공업 대표이사 및 하청업체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화재·폭발, 밀폐 공간 질식재해, 고소작업 추락재해 등을 예방하고자 현장 위험 요인을 중점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하청업체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원·하청 협력사업 추진 현황과 안전관리 애로사항을 듣고 안전보건관리계획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는 이날 행사에서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원년' 선포식을 갖고, '원·하청 상생협력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 하청업체의 위험성평가 인정을 지원하는 등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하였다.

2018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18년 1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7,493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68천 명(+1.6%) 증가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 2018년 1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종사자 수는 17,493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68천 명(+1.6%) 증가.

규모별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4,840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32천 명(+1.6%) 증가, 300인 이상은 2,653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7천 명(+1.4%) 증가.

산업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6천 명, +6.4%),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35천 명, +3.6%), 도매 및 소매업(+35천 명, +1.6%) 등에서 주로 증가.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17년 9월(+92천 명) 이후 9만 명대의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2017년 6월(+20천 명) 저점 이후 증가세 유지.
- 전 산업 중 종사자 수가 약 21%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우, 2017년 11월(+1천 명) 저점 이후 증가세.

노동이동 2018년 1월 중 노동이동률은 11.3%로 전년 동월대비 1.7%p 상승하였으며, 2017년 2월 이후 노동이동이 활발해진 모습.

- 노동이동률이 큰 산업은 건설업(27.2%), 숙박 및 음식점업(19.3%) 순이고, 작은 산업은 운수업(7.0%), 제조업(7.1%) 순임.
- 전년 동월대비 노동이동률이 가장 많이 상승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5.8%p),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5.6%p),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4.5%p)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4.3%p), 광업(-1.1%p)은 노동이동률이 하락.

입·이직자 2018년 1월 중 입직자 수는 886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53천 명(+20.9%) 증가, 이직자 수는 983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44천 명(+17.2%) 증가.

- 2018년 1월 입직률은 5.4%로 전년 동월대비 0.9%p 상승하였고, 이직률은 5.9%로 전년 동월대비 0.8%p 상승.

규모별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입직자 수는 767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36천 명(+21.5%) 증가, 이직자 수는 846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28천 명(+17.9%) 증가.

-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 입직자 수는 119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7천 명(+17.2%) 증가, 이직자 수는 136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6천 명(+13.5%) 증가.

산업별 입직자가 많은 산업은 건설업(142천 명), 제조업(126천 명) 순이며, 이직자가 많은 산업은 건설업(191천 명), 제조업(132천 명) 순. 🐾